

# 고향사랑, 따듯했다...광주 남구·동구 기부금 전국 1·2위

남구 71억, 전년보다 16.7배 급증  
동구 64억, 3년만에 누적 97억원

지난해 광주시 남구와 동구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에서 각각 71억원, 64억원을 모으며 전국 1위와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의 경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 3년 만에 누적 모금액 97억여원을 달성하면서 전국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 남구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이 71억 3500만원으로 전국 1위 모금액을 모았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모금액인 4억2775만원과 비교해 무려 16.7배 늘어난 금액이다.  
남구는 지정기부 사업 선정, 답례품 다변화,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 등을 바탕으로 기부금을 끌어 올렸다고 자평했다. 장애인 예술단·풋살팀·수영클럽 운영 및 지원, 지역 청소년 꿈의 오케스트라 뉴욕 공연,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모금 등의 사업을 통해 모인 기부금만 11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기부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

로 상향하면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하고, 고액 기부자를 위한 품격 있는 답례품을 마련하는 등 다변화 전략도 추진했다. 민간 플랫폼 3곳과 협력해 기부 참여 기회를 넓히고, گیا 타이거즈 유니폼 증정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기획 이벤트도 진행했다.  
남구는 지난해 기부금 총액의 30% 수준인 21억원 상당의 답례품을 지역 공급업체 40여곳을 통해 제공했다.  
광주시 동구의 경우 지난해까지 누적 모금액 97억여원을 기록해 '100억원 고지'를 앞두고 있다. 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모금액이다.  
동구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3년 9억2000만원을 시작으로 2024년 23억9600만원, 지난해에는 64억원을 모으며 매년 2배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기금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꾸준히 공개하며, 기부자의 참여가 지역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것이 동구의 설명이다.  
동구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지정기부' 방식을 선제 도입해 호응을 이끌어냈다. 첫해인 2023년에는 국내에서 두번째로 오래된 극장인 광주극장 보존 사업에 8300만원,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

인 E.T.야구단 지원에 2억5400만원이 모였다.  
2024년에는 광주극장 1억3400만원, E.T.야구단 지원 4억2300만원에 더해 유기동물 구조보호 시설 '피스명명' 운영 사업을 신규 도입해 3억 9000만원을 모았다.  
지난해에도 광주극장 2억2000만원, E.T.야구단 지원 8억1400만원, 피스명명 8억7900만원에 이어 신규 사업인 폭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7억7800만원을 모금했다.  
지정 기부 건수 역시 2023년 921건에 이어 2024년 2396건, 지난해 6408건으로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렸다.  
동구는 2024년 전국 기초단체 모금액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광주시 남구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동구 관계자는 "행정에 대한 기부자들의 신뢰가 만들어진 결과"라며 "더 많은 파트너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부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시 서구에는 28억8007만7500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였으며 북구에는 15억 3769만원, 광산구에는 4억 2877만원이 모금됐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오는 2029년 광주시 동구 선교동 199-3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선교저수지 복합호수공원' 조감도.  
(광주시 동구 제공)

## 동구, 선교저수지 일대 생태친화형 수변공원으로

### 2029년까지 90억 투입

광주시 동구가 선교동 선교저수지 일대에 생태친화형 수변공원을 조성한다.  
광주시 동구는 오는 2029년까지 선교동 199-3번지 일원 총 4만81㎡ 부지에서 '선교저수지 복합호수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동구는 총 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해 생태친화 수변공원과 산책로 등 생활밀착형 공원을 조성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커뮤니티 공간과 스마트 시티 등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동구는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국비 20억원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토지 보상 일부와 기본·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동구는 토지 보상 협의와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잔여 토지 보상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끌어올릴 핵심 사업"이라며 "생태와 문화, 휴식이 어우러진 수변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 광산구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송정1·2동 등 7곳

### 2월 27일까지 접수

광주시 광산구는 오는 2월 27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된다.  
대상 지역은 송정1·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평동 등 7곳이다.  
올해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12월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외국인과 보상 기간 중 전출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거주했으나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이

번에 신청 가능하다. 보상금은 5월 말에 결정·통보되며,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군용비행장의 경우 소음 피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종 지역(95웨를 이상)은 월 6만 원, 2종 지역(90웨를 이상~95웨를 미만)은 월 4만 5000원, 3종 지역(85웨를 이상~90웨를 미만)은 월 3만 원이다.  
다만 전입 시기나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평동 군사격장 역시 등급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1종 지역(94dB 이상)은 월 6만 원, 2종 지역(90dB 이상~94dB 미만)은 월 4만 5000원, 3종 지역(84dB 이상~90dB 미만)은 월 3만 원이다. 자격 일수에 따라 실제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 방법은 2월 27일까지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을 준비해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평동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월 중 평지경

로당(명화평지길 245)에서 별도 접수처를 운영할 예정이다.  
세대 대표가 대신 신청할 경우 세대 대표자 선정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직장 근무자는 재직 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세대 대표가 아닌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을 지참해 방문·우편 접수하면 되며, 온라인(정부24)은 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는 군소음포털과 사격장 대책 지역 조회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해당 대상 지역 주민들은 신청 기간에 반드시 보상금을 신청해 달라"며 "주민들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서구,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최고 ‘A등급’

### 재해위험·재난·시설관리 우수

광주시 서구가 자연재해 대응과 관리 전반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

라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다.  
서구는 재해위험요인, 재난관리, 시설관리 등 3개 분야 33개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지난해보다 2등급 상승한 A등급을 받았다.  
A등급은 상위 15% 기관에만 부여되며 특전으로 피해복구비 국고지원을 2% 추가로 받게 된다.  
서구는 풍수해·대설·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훈련과 함께 대응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정비·이행해 왔다. 또한 우기 대비 주요 시설물 사전 점검과 재해 예방 사업도 적극 추진했다.  
특히 재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 점이 등급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제적인 대비 체계를 구축해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1번지 서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북구, 올해도 청년들 사회 첫발 준비 돕는다

### 맞춤형 ‘청년도전 지원사업’ 추진

광주시 북구가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북구는 구직을 포기하거나 구직 의욕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북구는 총 11억 9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광주에 거주 중인 만 18~39세 청년 234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최근 6개월 이내 취·창업 이력이 없는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일대일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구직 준비 정도, 개인별 특성 등을 종합 판단한 뒤 단기(5주이상), 중기(15주이상), 장기(25주이상) 등 기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북구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1인당 최대 350만 원의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3개월 이상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해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고용24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 수행기관인 지역고용정책연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노동시장에 뛰어든 수 있도록 돕는 발판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일보 74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수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겨울철 일등보양식

청자골 자라양식장 창업 20주년 특별할인

고단백, 면역력 최고!

자라 엑기스 2개월분

① (12kg + 한약재)  
② (12kg + 마늘 생강 대추)  
70만원 → 60만원 (10만원 할인)

자라 요리 전문(단체모임환영)

자라탕 용봉탕 / 방생자라 판매

청자골 자라 양식장 | 061-434-0067 / 010-3635-3362

강진군 성전면 별미로 297-52